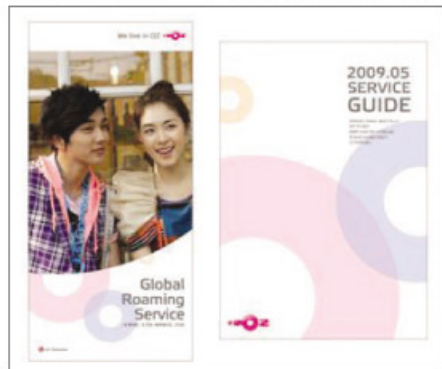


**[삼성전자] 세계에서 가장 얇은 '워치폰'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11.98mm 두께의 폴터치 워치폰을 지난 7월 프랑스에서 공개했다. 10년 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기네스북에 올렸던 첫 워치폰 두께는 20.5mm였다. 이번 울트라 슬림 워치폰'은 손목에 차는 손목시계 스타일의 터치폰이다. 4.5cm 크기 터치스크린에 홈집이 잘 나지않는 강화유리를 씌웠다. 스테인리스 금속 몸체에 가죽 소재 시계줄을 사용해 고급스럽게 디자인했다. 다양한 기능도 지원된다. 아웃룩 e메일 확인이 가능하며 스피커폰을 통한 음성통화, MP3플레이어, 블루투스, 음성인식 등이 된다.

**[LG텔레콤 OZ(오즈) VI(Visual Identity) 작업**



LG텔레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오즈 브랜드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미지를 통일화 하는 VI(Visual Identity) 작업에 돌입했다. OZ의 O자를 기본 이미지로 삼아, 디자인의 일관성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명함, 포스터, 회사차량, 요금청구서 등 대외적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제작물 이미지를 공통화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 화면 사용자인터페이스(UI), 대리점 간판, 사옥 벽면, 고객들이 대기하는 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동일한 이미지를 적용해 회사를 접하는 고객들이 일관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승훈 LG텔레콤 상무는 "O자를 활용한 LG텔레콤의 디자인 일관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공간이 된다는 강력한 의미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u-city 체험관**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u-city 체험관 투모로우 시티(Tomorrow City)가 7월 31일 오픈했다. 이 체험관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미래도시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구현했다. 무인인식 주차시



스템을 비롯해 대형 실내공간에서도 정확히 위치를 찾아주는 GPS 시스템, 물체를 인식해 점등하는 LED 가로등,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횡단보도 시스템 등 미래 도시기술이 실현됐다. 가정에서는 u-컬처(culture) 시스템을 통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원작을 감상하고, 참여형 IPTV를 이용해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기도 한다. u-뷰티(beauty) 시스템으로 얼굴을 스캔한 뒤 가상으로 성형후 모습이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악세서리 변화 후 모습을 살펴본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미래 도시의 방법, 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관제서비스가 유비쿼터스 센서들을 통해 구현됐다. SK텔레콤의 u-city 관련 기술을 총 망라한 이 체험관은 ICT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집약된 미래 최첨단 도시의 축소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u-city 체험관은 인천세계도시축제의 핵심 콘텐츠로서, 관람객들에게 기술, 문화, 생활이 어우러진 미래도시를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09 부산국제광고제(AD STARS 2009)' 8월 27일 개막**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는 지난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전세계 28개국 72명의 예선 심사위원들이 엄정한 온라인 심사를 진행한 끝에 본선 진출작(파이널리스트) 646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국제광고제 예선에는 모두 38개국 3,258편이 참여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선정된 646편의 본선 진출작들은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서 11개국 14명의 광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심사를 통해 그랑프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 그랑프리는 제품·서비스 부문과 공익 부문에 각각 수여되며, KNN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공하는 상금은 각 1만 달러이다. 그랑프리 이외에도 부문별 금, 은, 동상, 특별상 등이 수여된다.

부산국제광고제 이의자 집행위원장(경성대 교수)은 "이번 본선 진출작에는 칸국제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과 롤리오광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포함되는 등 수준이 아주 높다"며 "광고인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광고들을 부산국제광고제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